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관찰 질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해답 1.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히브리 저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바로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묘사한다. “진동치 않는” (아살류토스)의 뜻은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다는 뜻으로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고, 고통이 없이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가 거의 없었다. 그것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아살류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갔고 그 왕국에 내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한, 아무리 불안한 삶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 우리 성도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더 커지고 강해지고 견고하여진다.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다 받았으며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산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 ❁ 적용 질문 1

- 1)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 2) 솔직히 나의 일상에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언제이고, 반대로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해답 2.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자**”를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감사를 유지하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받자**”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더 나아가 이 표현은 문맥상 “**감사를 드리자**”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예1) **스데반 (Stephen): 초대 교회의 집사**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참혹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한다. 그는 죽음 직전에도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평안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2) 작년 터키 티디(MEGL15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세레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남. 또한 올 MEGL 16기에는 이란과의 전쟁 중에 2주간 휴전이 되므로 16개 나라의 민족들이 모이고 5개 나라 언어로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큰 은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졌음.

오직 이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더욱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적용 질문 2

- 1) “은혜를 받자”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붙들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기 위해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답 3.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특별히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섬김과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 **경건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며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이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죽음의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 애송한 시편이 46편이다.

(시 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바닷물이 흉용하고 뒤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진동하고, 환경도 진동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진동하지 않는 그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기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세계선교 마무리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적용 질문 3

- 1) 내가 받은 은혜가 감정으로 끝났던 적과, 실제 섬김과 예배로 이어진 적이 있다면 각각 나눠주세요.
- 2) 루터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시편 46편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이나 찬양을 붙들고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